



「2021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한국사 기출문제 및 해설(4)

| 노범석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5. 밑줄 친 '이 농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대개 이 농법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서로 기르는 것이고, ... (중략) ... 옛 흙을 떠나 새 흙으로 가서 고갱이를 씻어 내어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무릇 벼를 심는 논에는 물을 끌어들이 수 있는 하천이나 물을 댈 수 있는 저수지가 꼭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없다면 벗논이 아니다.

- 『임원경제지』 -

- ㄱ. 세종 때 편찬된 『농사직설』에도 등장한다.
- ㄴ. 고랑에 작물을 심도록 하였다.
- ㄷ. 『경국대전』의 수령칠사 항목에서도 강조되었다.
- ㄹ. 직파법보다 풀 뽑는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15. 이양법

정답 : ②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이 농법'은 이양법을 일컫는다.

㉠ 세종 때 편찬된 '농사직설'은 실제 농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비법, 이양법(모내기법) 등의 농법을 소개하였다. ㉡ 이양법은 직파법보다 잡초를 제거하는 노동력을 줄일 수 있었다.

오답분석 :

㉢ 견종법에 대한 설명이다. 조선 후기에 밭고랑에 곡식을 심는 이른바 견종법이 보급되었다.
 ㉣ 이양법은 수령칠사의 항목에 없는 내용이다. 수령칠사의 내용은 농상성(農桑盛, 농상을 성하게 함)·호구증(戶口增, 호구를 늘림)·학교흥(學校興, 학교를 일으킴)·군정수(軍政修, 군정을 바르게 함)·부역균(賦役均, 부역을 균등하게 함)·사송간(詞訟簡, 소송을 간명하게 함)·간활식(奸猾息, 교활하고 간사한 버릇을 그치게 함)이다.

16. 밑줄 친 '헌법'이 시행 중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은?

이 헌법은 한 사람의 집권자가 긴급조치라는 형식적인 법 절차와 권력 남용으로 양보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 인권과 존엄성을 억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 남용에 형식적인 합법성을 부여하고자... (중략) ...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한 사람의 집권자에게 집중시키고 있다.

- ①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났다.
- ②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하였다.
- ③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 ④ 한일 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6·3 시위가 있었다.

16. 유신 체제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1972년에 제정된 유신헌법(7차 개헌)의 내용으로, 유신헌법은 1972년 11월부터 1980년 10월 8차 개헌 전까지 적용되었다. ① 1979년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났다.

오답분석 :

② 1968년의 일이다. ③ 유신헌법 제정 직전인 1972년 7월의 일이다. ④ 6·3 시위가 발발한 것은 1964년의 일이다.

17. 밑줄 친 '회의'에서 있었던 사실은?

본 회의는 2천만 민중의 공정한 뜻에 바탕을 둔 국민적 대화합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국민의 완전한 통일을 공고하게 하며, 광복 대업의 근본 방침을 수립하여 우리 민족의 자유를 만회하며 독립을 완성하기를 기도하고 이에 선언하노라. ... (중략) ... 본 대표 등은 국민이 위탁 사명을 받들어 국민적 대단결에 힘쓰며 독립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여 통일적 기관 아래에서 대업을 완성하고자 하노라.

- ①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 상정되었다.
- ② 박은식이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 ③ 민족유일당운동 차원에서 조선혁명당이 참가하였다.
- ④ 임시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17. 국민 대표 회의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국민 대표 회의의 선언문으로, 밑줄 친 '회의'는 1923년에 개최된 국민 대표 회의를 일컫는다. ④ 국민 대표 회의에서는 현 임시 정부를 해산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자는 창조 파와,

현재의 임시 정부의 조직을 개편하여 존속시키자는 개조파로 양분되어 대립하였다.

오답분석 : ①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 발표된 것은 국민 대표 회의 개최 이후인 1941년의 일이다. ② 국민 대표 회의 개최 이후인 1925년의 일이다. ③ 국민 대표 회의와는 관련 없는 내용이다. 1935년 지청천의 조선 혁명당, 조소앙의 한국 독립당은 민족 혁명 당 창당에 참여하였다.

18. 다음 법령에 따라 시행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따른다.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한 기간 내에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 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토지 조사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① 농상공부를 주무 기관으로 하였다.
- ② 역둔토, 공장토를 총독부 소유로 만들었다.
- ③ 토지약탈을 위해 동양척식회사를 설립하였다.
- ④ 춘궁 퇴치, 농가 부채 근절을 목표로 내세웠다.

18. 토지 조사 사업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1912년에 제정된 토지 조사령의 내용으로, 이 법령에 따라 1910년대 토지 조사 사업이 추진되었다. ② 토지 조사 사업에 따라 공장토(대한제국 황실 소유지), 역둔토(관유지) 등 특정 소유자가 없는 토지는 신고주가 없어 국유지의 명목으로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

오답분석 : ① 토지 조사 사업의 주무 기관은 토지 조사국이다. 농상공부는 2차 갑오개혁 때 만들어졌으며, 1910년 한일 합방 때까지 존속한 관서이다. ③ 동양척식 주식 회사의 설립은 1908년의 일로, 토지 조사 사업 실시 이전이다. ④ 농촌 진흥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19. 개항기 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항장에서 조선인 객주가 증개 활동을 하였다.
- ② 조·청 무역장정으로 청국에서의 수입액이 일본을 앞질렀다.
- ③ 일본 상인은 면제품을 팔고, 쇠가죽·쌀·콩 등을 구입하였다.
- ④ 조·일 통상장정의 개정으로 곡물 수출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19. 개항기 무역

정답 : ②

② 조·청 수륙 무역 장정으로 청나라에서의 수입액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맞지만, 수입액이 일본을 앞지른 적은 없었다.

오답분석 : ① 개항 직후인 1870년대, 외국 상인의 활동 범위가 개항장에서 10리 이내로 제한(거류지 무역)되었기 때문에, 객주 등 조선 상인을 매개로 증개 무역을 하였다. ③ 일본 상인들은 주로 영국에서 수입한 면제품을 조선에 팔고, 쇠가죽·쌀·콩 등을 쌀값에 구입하였다. ④ 조선은 1883년 일본과 조·일 통상 장정을 개정하여 곡물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방곡령)을 추가하였다.

20.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군역에 뽑힌 장정에게 군포를 거두었는데, 그 폐단이 많아서 백성들이 뼈를 쥐는 원한을 가졌다. 그런데 사족들은 한평생 한가하게 놀며 신역(身役)이 없었다. ... (중략) ... 그러나 유속(流俗)에 끌려 이행되지 못하였으나 갑자기 그가 강력히 나서서 귀천이 동일하게 장정 한 사람마다 세납전(歲納錢) 2민(緡)을 바치게 하니, 이를 동포전(洞布錢)이라고 하였다.

- 『매천야록』 -

- ① 만동묘 건립을 주도하였다.
- ② 군국기무처 총재를 역임하였다.
- ③ 통리기무아문을 폐지하고 5군영을 부활하였다.
- ④ 탕평 정치를 정리한 『만기요람』을 편찬하였다.

20. 흥선 대원군

정답 : ③

밑줄 친 '그'는 흥선대원군이다. ③ 임오군란 때 재집권한 흥선대원군은 통리기무아문을 폐지하고, 5군영을 복구하였다.

오답분석 : ① 숙종 때 송시열의 유지에 따라 충북 괴산에 만동묘를 세워 명나라 신종과 의종을 제사지냈다. 흥선대원군 때에는 오히려 노론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 만동묘를 폐지하였다. ② 군국기무처의 총재를 역임한 인물은 김홍집이다. ④ '만기요람'은 순조 때 서영보·심상규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책으로, 재정과 군정의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